

Old or New? 인종주의의 다차원성과

영향력의 차별성:

미국의 경험을 통한 탐색적 연구*

원 숙 연**

..... <目	次>
I. 문제제기	IV. 분석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논의	V. 결론 : 연구결과와 함의
III. 실증연구	

<요 약>

인종주의는 인종을 기준으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한 내집단(외집단) 우월성(열등성)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인종주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감정적인 차원(정서적 대응)과 인지적인 차원(인종차별인식, 인종적 편견)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이들 다차원적 구조가 인종관련 정책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인종주의의 인지적 차원 중 인종적 편견(racial prejudice)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였다.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차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존재양식은 어떠한가? 이들 다양한 차원이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작용방식은 차원별로 어떻게 다른가?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후발 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일반인 4,240명을 대상으로 인종주의와 관련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2008-2009년 미국선거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주의 및 기회의 평등가치가 개입된 '새로운'(new) 인종편견이며, 생물학적 전제에 기초한 '과거의'(old)인종편견이 갖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새로운' 인종편견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은 진보이념으로, 인종관련 정책에 있어서 이념의 영향력이 재확인된다. 셋째,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인식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327-2001-1-B00806)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ywon@ewha.ac.kr)

논문접수일(2012.8.21), 게재확정일(2012.10.12)

은 감정이 아닌 인지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과거의 인종차별보다 현재의 인종차별이 인종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인종정책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닌 현재의 문제에 대한 '대응'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우리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인종주의, 인종소수자 정책, '구'(old) 인종편견, '신'(new)인종편견, 진보이념】

I. 문제제기

인종적 다양성에 기반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은 단순히 새로운 '흐름'이 아닌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책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인종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쟁점이 개진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종관련 정책을 일반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하는 문제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책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책비용의 부담자인 담세자로서 일반국민의 수용정도가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및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속성상 주류집단인 일반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소수자의 이해관계를 제로-섬(zero-sum)으로 인식하여 이해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인식하는데 작용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일까? 기존논의를 종합하면, 그 요인은 크게 인종적 요인(racial factors)과 비인종적요인(non-racial factors)으로 구성된다(Bobo & Kluegel, 1993; Sidanus et al., 1996; Sniderman & Carmines, 1997; Williams et al., 1999; Jackson, et al., 2001; 송태수, 2006; 김혜숙, 외, 2011). 전자는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 및 감정적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후자는 개인이 갖는 이념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한 인종적 요인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인종주의가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 갖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Barker, 1984; Essed, 1984; Gaertner & Dovidio, 1986; Bobo & Kluegel, 1993; D'Souza, 1995; Dovidio, et al., 1996; Alexis, 1999; Ford & Kelly, 2005; Carmines, et al., 2011; Gainous, 2012).¹⁾

1)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백인의 반발은 “오바마 대통령의 피부색(the color of President Obama's skin)과 무관하지 않다”고 표현될 정도로(Rich, 2010; Gainous, 2012에서 재인용), 인종관련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인종적 편견 및 인종관련 요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인종주의는 인종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고, 이에 기초하여 특정 인종집단을 평가하는 태도로 내집단(외집단)우월성(열등성)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 더 나아가 특정 인종집단이 다른 인종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사회적 자원에 불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작동한다(강철구, 2001). 즉 인종주의는 대중의 인식 속에 지속적이고 뿌리깊게 자리잡은 '조건'이면서 동시에 법, 고용,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현되는 헤게모니적 권력으로 작동한다(Ladson-Billing & Tate, 1995; Vaught & Catagno, 2008; Young, 2011). 더욱이 정책적 개입은 사회적 자원에의 접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사회적 자원 배분의 양식을 결정(변화)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권력으로서 인종주의가 작용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Kinder and Sears, 1981; Sniderman and Piazza 1993; Kinder and Sanders 1996; Sears et al. 1997; Alvarez and Brehm 2002). 바로 이러한 맥락이 인종주의가 '인종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작용하는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다차원적 측면에 주목한다. 인종주의는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정서적 대응(emotional sentiments)에서부터 인종적 편견에 이르기 그 논리의 스펙트럼이 꽤 넓기 때문에, 이들 다차원적 구조가 인종관련 정책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논의하는 것이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바람직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인종적 다양성이 본격화된 우리나라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는 일천하다. 더욱이 인종주의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조사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단순 인종적 편견만이 아니라 인종주의가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논의한 것은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민국가로 시작된 미국은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상당하며, 광범위하고 대표성있는 조사자료가 축적되어 있다(Sniderman & Piazza, 1993; Ladson-Billings & Tate, 1995; Pettigrew & Meertens, 1995; Kinder & Sanders, 1996; Tuch & Hughes, 1996; Williams et al., 1999; Vaught & Castagno, 2008). 결국, 후발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는 선발다문화사회의 궤적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투영해보는 과정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이러한 간접경험을 통해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적 개입, 그러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순응확보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역사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와 일직선상에게 비교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우(遇)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였다.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차원은 어떠한 것들

이 있는가?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존재양식은 어떠한가? 이들 다양한 차원이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작용방식은 차원별로 어떻게 다른가?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후발 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논의

1.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인종주의의 기반구조 : 사회적 범주화

인종주의는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Allport, 1954; Tajfel & Turner, 1979; Tajfel, 1981; 김혜숙, 1999; 김혜숙 외, 2011), 인간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해 특정의 사회적 범주로 집단화하고자 한다. 범주를 구성하는 근거는 성, 인종, 계층, 출신지역 등 다양하나 인종과 성이 가장 현저한 기준이다. 범주화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범주화의 특징은 같은 범주에 속하면 동질성을, 다른 범주에 속하면 차이점을 ‘과장되게’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전자는 내집단(in-group) 편향으로, 후자는 외집단(out-group) 배제로 나타난다. 인종을 기반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리하고 그러한 분리에 근거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인종주의이다.

사회적 범주화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인지과정의 단순화이다. 인간이 직면하는 시간적 한계와 인지능력의 한계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현실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인간은 ‘범주에 의한 정보처리’(category-driven information processing)를 한다(Meyerson et al., 1996:182; 김혜숙, 1999; 김혜숙 외, 2011). 백인은 어떻고, 흑인은 어떠하며, 아시아인은 어떠하다는 식의 인종을 범주로 한 평가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경우 개개의 모든 정보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인지 및 정보처리과정을 단순화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인지과정이 단순화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정보처리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범주를 통해, 특정의 정보가 걸러지거나, 무시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범주화의 또 다른 기능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높이려는 동기와 관련된다(Tajfel & Turner, 1979; Tajfel, 1982; 김혜숙, 1999; 김혜숙 외, 2011). 다른 집단을 자신이 속한 집단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높이려는 동기에 범주화가 기능한다. 예를 들어, 흑인 및 여타의 유색

인종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백인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제고하거나, 단일민족 이념을 앞세워 한국인을 외국인보다 높게 인식하려고 하는 것 등이 그에 속한다. 결국, 인종을 근거로 한 사회적 범주화를 바탕으로 인지과정을 단순화하고, 특정 인종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제고하려는 동기가 바로 인종주의의 기반구조가 된다.

2) 인종주의의 개념 및 다차원성

인종주의는 인종이라는 범주를 기반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고, 이를 기초로 내집단 편향(in-group bias)과 외집단 배제(out-group exclusion)로 발현되는 평가적 태도이다(Stangor, et al., 1991; 김혜숙, 1999; 김혜숙 외, 2011). 여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인종주의도 감정 및 인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감정적 차원은 좋아함, 싫어함, 또는 유쾌 및 불쾌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Lazarus, 1984; Zajonc, 1984),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은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좋고 싫음과 같은 집단정서(sentiments)를 말한다.

한편, 태도의 인지적 차원은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한 타산적이고 도구적인 평가인데(Lazarus, 1984; Zajonc, 1984), 이를 인종주의에 적용할 경우, 특정 인종 집단 구성원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정보)을 근거로 한 가치개입적 판단을 의미한다. 인종주의의 인지적 차원은 인종 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한 인식과 인종적 편견(racial prejudice)으로 구성된다(Sniderman et al., 1991; Pettigrew & Meertens, 1995; Williams et al., 1999). 전자는 인종차별의 존재여부 및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인종적 편견은 인종주의의 핵심적 차원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인종이 인간의 특질과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인종적 차이는 특정 인종의 우수성(또는 열등성)을 만든다는 믿음이다(<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acism>). 이러한 인종적 편견이 일반적이고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것인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인종적 편견이 부상하고 있는바, 전자는 '과거의(old), 후자는 '새로운(new)이라는 형용사로 구분된다.2) '과거의'인종적 편견은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우열을 기반으로 한 부정적 판단을 근간으로 하는데(Sniderman et al., 1991), 기본전제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은 문화, 개성, 그리고 지적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전학적 형질에 따라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생래적으로 우월(열등)하다는 것이다(Merger, 1994:27). “흑인은 게으르고, 무식하고, 폭력적이며, 과시욕이 있다”는 식의 노골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Sears et al., 1997:20).

2) 과거의 인종적 편견에는 '구식의'(old-fashioned)(McConahay, 1986), '노골적인'(blatant)(Pettigrew & Meertens, 1995), '고전적'(classical)(Sidanius, et al. 1996), 또는 전통적'(traditional)(Williams et al., 1999) 등의 수식어가, 새롭게 나타나는 편견에 대해서는 '상징적'(symbolic)(Sears, 1988; Sears & Jessor, 1996), '현대적'(Modern)(Pettigrew, 1989), '교묘한'(subtle) (Pettigrew & Meertens, 1995), '최신의'(contemporary)(Williams et al., 1999)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반면, ‘새로운’ 인종편견은, 비교적 논리가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서 쉽사리 드러나고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과거의’ 편견과는 달리 보다 은밀하고 복잡하다(Sears, 1988; Pettigrew, 1989; Pettigrew & Meertens, 1995; Sears & Jessor, 1996). 먼저, 표면적으로는 인종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며, 둘째, 미국에서 오랫동안 중시되어 온 사회적 가치인 자조(self-help) 자립(self-reliance)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와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Gaertner & Dovidio, 1986; Sears, 1988; Pettigrew, 1989; Pettigrew & Meertens, 1995; Sears & Jessor, 1996; Sears et al., 1997; 김혜숙 외, 2011). 따라서 ‘새로운’ 인종편견은 소수 인종집단이 생래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과거의’ 편견이 ‘흑인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했다면, ‘새로운’ 편견은 ‘흑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근면한가에 달려있다’ 또는 ‘흑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식으로 표현된다(Sears et al., 1997: 22; cf Sears, 1988). 결국, 흑인의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흑인들이 자조와 자립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로, 인종주의적 색채를 감추는 것이 ‘새로운’ 인종편견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새로운’ 인종편견이 부상한 맥락이다. 미국에서 특정인종(흑인)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전제에 기반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편견인 ‘과거의’ 인종편견은 ‘정치적으로 잘못된’(politically incorrect)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socially undesirable)는 공격과 압력의 대상이 되면서 그 자리가 ‘새로운’ 인종주의로 대체 되었다. 즉 인종편견이 ‘종언’을 고한 것이 아니라(D’Souza, 1995 see also Roth, 1994; Sears et al, 1997),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적 편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위장하려는 동기가 작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Kinder and Sears, 1981; Sniderman et al., 1991). ‘새로운’ 편견은 보다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가치가 개입된 교묘한 형태로, 무엇보다 인종주의적 색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의’ 인종적 편견과 ‘새로운’ 인종적 편견이 인종관련 정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여타의 영향요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종주의의 상대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종주의의 다차원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³⁾

3) 인종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노포비아(xenophobia)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가 있다. ‘인종주의가 특정인종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태도라면,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혐오 또는 공포(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Webster’s)에 기반한다(<http://en.wikipedia.org/wiki/Xenophobia>). 즉, 제노포비아는 외-집단에 대한 감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에 보다 가깝다. 제노포비아를 ‘인종주의의 약한 버전(mild version of racism)’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Westin, 2003; 송태수, 2006: 255재인용). 한편, 자민족중

〈표 1〉 인종주의의 개념적 다차원성

인종주의 racism	감정 차원	정서적 대응 racial sentiments	특정인종집단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좋다/싫다, 따뜻하다/차갑다)	
	인지 차원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집단에 따라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정도	
		인종 편견 racial prejudice	'과거의'(old) 편견	생물학적인 전제에 기반하여, 인종이 능력을 결정하며, 인종적 차이는 특정 인종집단의 열등성(또는 우수성)을 만든다는 믿음
			'새로운'(new) 편견	특정 인종집단이 생래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개인주의와 기회의 평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침해한다는 부정적 판단

2. 인종주의의 다차원성과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의 역학

1) 정서적 대응(racial sentiments)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은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좋음(싫음) 또는 친근감(거리감)에 기초한 정서적 대응(emotional sentiments)이다(Jackson et al., 2001). 이는 특정의 인종집단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특성을 갖는다. 인종관련 정책이 아니라 해도 모든 정책영역에서 그 정책의 대상집단을 좋아 하는가 또는 싫어하는가에 따라 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책은 불가피하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책비용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비용부담 집단과 수혜집단으로 구분되고 이 때 비용부담집단이 정책 수혜집단에 대해 어떤 감정적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정책비용에 대한 관용 및 부담의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대상집단이 명확하고 정책의 수혜가 집중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존의 자원배분 양식의 변경을 초래할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담세자로 하여금 정책을 통해 발생할 이해관계 및 이해갈등에 민

심주의는 “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모든 사물의 중심이며, 내-집단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Sumner, 1906: 13; Neuliep & McCroskey, 1997:385에서 재인용). 내-집단을 가치있는 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Neuliep & McCroskey, 1997), 인종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자민족중심주의는 인종주의와는 달리,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월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문화적 요소(가치기준, 관습, 언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가 보편적이고 우월한 것이라는 평가로까지 확대된다. 더욱이 자민족중심주의는 내-집단 구성원간의 단결, 복종, 및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나 권위주의와 연결된다(Neuliep & McCroskey, 1997). 이렇게 볼 때,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및 자민족중심주의 모두 사회적 범주화에 기초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내집단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수렴하나 제노포비아는 주로 감정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자민족중심주의는 넓은 의미의 문화적 우월성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와 차이가 있다.

감하게 만든다(Ayers et al., 2009; Pittinsky & Montoya, 2009; 한승준·박치성, 2011;). 이러한 이해갈등 상황에서 특정 인종집단에 대해 감정적으로 좋은(나쁜)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이해의 침해를 받아들이거나 정책비용을 부담하고 감수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약)해진다(Dovidio, et al, 1996; Haddcok et al, 1993; 1994; Stangor et al, 1991). 이러한 관계는 경험적으로도 입증되는데, 히스패닉에 대한 집단적 정서가 부정적일수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거나(Rocha et al., 2011), 흑인을 가깝게 느낄수록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Reyna et al., 2005; Pantoja, 2006)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에 대한 감정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 등(한승준·박치성, 2011)이 그 예가 된다.

2)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한 인식

기본적으로 정책은 현실의 문제나 요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과거에 존재했던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나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cf. Wilson, 2006).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 관계의 불균형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인 차별을 시정하는 성격을 띤 경우가 많다(cf. 김선희·전영평, 2008; 전영평,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종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과연 그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즉 인종차별의 정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cf. Ingram & Schneider, 2005; Schneider & Sidney, 2009). 만일 과거 및 현재의 인종차별의 정도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대로 과거 및 현재의 인종차별을 크게 그리고 심각하게 느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시간과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정책적 개입은 불가피하게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러한 우선순위는 그 문제가 갖는 사회적 심각성과 직결된다. 물론 사회적 심각성이 수치화되거나 계량화되는 것도 있지만(예: 자연재해관련), 상당부분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cf. Schneider & Ingram, 2005; Ingram, et al., 2007; Schneider & Sidney, 2009),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갖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과거 및 현재 인종차별의 정도를 높게(낮게) 인식하면 할수록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인종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낮게) 인식할 것이다.

3) 인종적 편견 (racial prejudice): old or new?

원칙적으로 특정 인종집단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평가인 인종적 편견이 높을수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진술한바와 같이 모든 정책은 불가피하게 정책비용을 발생시킨다. 정책비용이란 단순히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갈 자원의 감소까지 포함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과 불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정책 대상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인종편견 또한 예외가 아니다(Ho & Jackson, 2001; Pittinsky et. al., 2007; Sanchez & Bonam, 2009).

여기서의 중요한 쟁점은 생물학적이고 노골적인 ‘과거의’(old)인종적 편견과 개인주의 및 기회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개입된 ‘새로운’(new)인종적 편견이 인종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별성이다. 물론, 흑인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전통적인 편견이 높을수록 흑인과 백인의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고, 흑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과거의’ 인종편견이 갖는 영향력이 확인된다(McConhay, 1982; Jacobson, 1985; Bobo & Kluegel, 1993; Bobo & Smith, 1994; Williams et al, 1999). 문제는 ‘새로운’편견과의 상대적 차이인데, ‘새로운’인종편견이 과거의 인종편견에 비해 그 영향력이 강할 개연성이 높다. 그 중요한 요인은 ‘새로운’인종편견에 개입된 사회적 가치가 ‘제한된 정부’ 또는 작은 정부(limited government)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Jacobson, 1985; Gainous, 2012). 과거 흑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인종주의는 백인과 흑인간의 이분법에 따라 ‘인종 간 차이’ 및 분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새로운’ 인종적 편견이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는 자조와 자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인종적 편견의 저변에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그동안 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수혜를 받아왔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Schuman et al., 1997). 이처럼 자조·자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 및 제한된 정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색인종(특히 흑인)이 이러한 가치와 배치되는 혜택을 받아왔다는 인식이 함께 작용해 ‘새로운’인종적 편견이 인종관련 정책에 작용할 여지가 많아진다. 결국,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인종적 차이 및 흑인의 열위성을 강조하는 분리주의적 ‘과거의’인종편견이 인종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종집단에 대한 평가를 매개로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면, ‘새로운’인종적 편견은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자조자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및 작은정부이념을 위배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할 가능성이 있다.

3.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영향력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차원의 차별적 영향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영향요인으로 논의되었던 변수들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인종관련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다(Hood & Morris, 2000; Williams et al., 1999; Pantoja, 2006; Ayers et al. 2009; 박진경·원숙연, 2010; 원숙연, 2012). 그 이유는 첫째, 대표적인 소수집단으로서 여성은 다수집단인 남성에게 비해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여성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수집단 대 소수집단의 관계 개선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대해 남성보다 긍정적이다(Schlesinger & Heldman, 2001; Cooper et al., 2008; Battaglio & Legge, 2009). 또한 여성이 갖는 보살핌의 경향성과 노동시장참여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인종적소수집단과의 경쟁이나 그에 따른 이해침해를 덜 느끼는 것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용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종관련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다. 더욱이 나이가 어릴수록 특정인종을 대상으로 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정도가 낮고 견고하지 않아, 인종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Espanshade & Calhoun, 1993; Espenshade and Hempsted, 1996).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부당성을 더 크게 느끼기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다(Harrison et al., 2006; Pantoja, 2006; Ayers et al., 2009; 박진경·원숙연, 2010). 한편, 학력과 소득은 비슷한 방식으로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먼저 교육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 및 진보적 가치(예: 결과의 평등)에 대한 노출기회를 높인다(Espenshade and Calhoun, 1993). 더 중요한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종적 소수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침해가능성을 낮게 인지한다(Espenshade & Hempsted, 1996).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소수집단의 등장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통해 자신들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자원압박이다. 그런데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높은 경우, 소수집단과 자신들의 활동무대가 다르고, 동일자원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원압박을 적게 느끼고(Esses et al., 2001; Jackson et. al., 2001; Lee & Ottati, 2002), 이는 인종관련 정책을 받아들이는 폭을 넓힌다.

또 하나, 진보이념은 인종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한다. 진보 이념은 결과의 평등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소수집단에 대해 관대하다. 또한, 진보적 이념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이나 자원의 정의로운 배

분을 시장에 맡기기는 것에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Feldman, 1999; Funk, 2000; Pantoja, 2006; 박진경·원숙연, 2010). 마지막으로, 인종변수의 경우 유색인종이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에 대해 다수집단인 백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소수집단으로서 유색인종은 자신들을 일차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해도,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은 자신과 같은 소수집단을 위한 사회적 자원への 잠재적 또는 현재적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III. 실증연구

1. 자료의 수집 및 척도의 구성

이상의 이론적 논의의 실증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인종적 다양성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대표국가인 미국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종적 다양성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인종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나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에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경험과 과학적인 조사가 축적된 미국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최근 히스패닉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다문화 이슈가 흑백이분법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대규모 조사는 대부분이 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전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ANES) 중 2008-2009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08-2009년 패널조사가 갖는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전 조사의 경우, ‘과거의’(old) 인종적 편견에 대한 조사가 매우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00, 2004, 2008년 시계열자료는 흑인에 대한 인종편견을 “흑인은 게으르다(lazy)”, “흑인은 똑똑하지 않다”(unintelligent)의 문항으로 연속선상에서 측정하는 단순한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2008-2009년 패널데이터는 흑인에 대한 ‘과거의’(old)인종편견을 복합적이고 진보된 설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문항은 후술한다). 또한 2008-2009 패널데이터에서 인종주의는 2009년 후반부의 WAVE 20에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를 둘러싼 미국인의 최근 인식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2008-2009 ANES 패널자료 중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흑인에 대한 정서적 대응)과 인지적

차원(①과거의 인종차별-②현재의 인종차별-③‘구’(old)인종편견 ④‘새’(new) 인종편견)를 구분하였다. 먼저,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은 ‘흑인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집단정서’(emotional sentiments toward blacks)로, <긍정적-중립적-부정적>인 정도로 측정하였다. 인지적 차원 중,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의 정도는 과거(‘지난 50년 간 존재했던 미국 내 인종차별의 정도’)와 현재(‘오늘날 미국 내 인종차별의 정도’)로 구분하여, <매우 높다-전혀 없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인종적 편견(racial prejudice) 중 ‘과거의(old) 편견은’ 백인은 학습능력이 선천적으로 우월하다’, ‘흑인은 백인만큼 근면하지 못하다’, ‘신은 인종을 다르게 창조하였다’로 구성하였다. ‘새로운’(new)편견은 ‘흑인도 다른 인종(유대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및 그 외 인종)들처럼 특별대우없이 인종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흑인은 자신들의 가치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흑인이 잘 사고 싶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로 구성하여 각각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동의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인종은 백인-흑인-히스패닉-기타(the others)의 네 집단으로, 교육은 최종학력 수준으로, 거주지역은 북동부(Northeast), 중서부(Midwest), 남부(South) 및 서부(West)로 나누어 자기기입식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는 미국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이고도 가장 오래된 인종관련 정책인 적극적 조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적극적 조치는 그 자체로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여 가장 민감한 인종정책에 속한다(Crosby, 1994; Williams et al, 1999; Bell et al., 2000; Massey, 2004). 이처럼 높은 이해관계의 민감성을 가진 적극적 조치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 시 흑인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변수와 함께 인종변수를 고려하도록 허용한다’와 ‘기업에서 직원선발 시 흑인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변수와 함께 인종변수를 고려하도록 허용한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여, <매우 찬성한다-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의 특성 및 측정도구의 평가

본 연구는 미국 전역에 걸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참여자를 전화로 모집하였으며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었다. 2008-2009년 패널데이터는 일반인들의 선거행태 및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 등 매우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에서 본 연구의 초점에 부합하는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을 비롯하여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에 사용된 표본은 총 4,240명이며, 구체적인 표본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구성

구분		표본 수(%)	구분		표본 수(%)
성별	남성	1798(42.4)	지역	북동부(Northeast)	524(17.2)
	여성	2448(57.6)		중서부(Midwest)	839(27.5)
인종	백인 흑인 히스패닉 기타	3292(77.6) 492(11.6) 275(6.5) 181(4.3)		남부(South)	966(31.7)
				서부(West)	720(23.6)
			학력	중졸이하	139(4.3)
				고졸	530(16.4)
				대학중퇴	1199(37.2)
대졸	756(23.5)				
대학원졸	598(18.6)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복수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old) 인종편견(3문항, α ; .752), ‘새로운(new)인종편견(3문항, α ; .723), 및 적극적 조치(2문항, α .716)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문항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왕의 구성개념 별로 요인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new)인종편견은 요인 1로, 흑인에 대한 감

〈표 3〉 설문문항 및 요인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Irish, Italians, Jewish and many minorities overcame prejudice and worked their way up. Blacks should do the same without any special favors (without favor: WOF)	.801	.007	.093	-.042
Blacks have gotten less than they deserve (getting less than deserve: GLD)	.766	-.084	-.087	-.182
Its really matter some people not trying hard enough: if blacks would only try harder they could be just as well off as whites (harder as whites: HAW)	.757	-.013	.168	-.089
Whites have more in-born ability to learn (ability to learn: ATL)	.000	.019	.848	-.036
God made people different from one another (God made different: GMD)	-.111	.004	.778	-.150
Blacks just don't work as hard (working hard: WH)	.343	.043	.717	.065
Feel warm or cold to blacks (emotional response toward blacks: ETB)	-.236	.850	-.086	-.012

정적 대응은 요인 2로, ‘과거의(old)인종주의는 요인 3, 인종차별의 정도는 요인 4로 적재되었다. 인종차별의 정도는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됨으로써, 시간의 문제보다는 차별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의 지형 분석: 집단 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의 차원별 인식 및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 보았다. 먼저,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인 흑인에 대한 정서적 대응은 2.26(3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흑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강하게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도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인지적 차원 중 인종차별의 정도와 관련하여, 과거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인정하였다(4.23/5). 현재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약하나(2.92/5), 일정한 정도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종적 편견에 대한 인식으로, 생물학적인 전제에 따라 흑인의 유전적 열위를 강조하는 ‘과거의’편견은 1.61(5점 만점), 상징적이며 사회적 가치가 개입된 ‘새로운’ 편견은 3.3(5점 만점)으로 나타나, 양자 간의 인식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생물학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과거의’ 인종편견이 비교적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로 제시되는, 무엇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인종적 편견으로 보이지 않은 ‘새로운’ 인종편견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일련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Sniderman, et al., 1991; Pettigrew & Meertens, 1995; Dovidio, et al., 1996; Kinder & Sanders, 1996; Tuch & Hughes, 1996; Carmines et al., 2011; Gainous, 2012).

〈표 4〉 흑인 대상 인종주의의 차원별 평균 및 차이분석

	감정적 대응	인종차별 정도		인종적 편견	
		과거	현재	old	new
전체평균	2.26	4.23	2.92	1.6190	3.3057
차이분석					
	감정적 대응	인종차별 정도		인종적 편견	
		과거	현재	Old	new

여성	2.3018	4.29	3.00	1.5738	3.1951
남성	2.2347	4.15	2.81	1.6533	3.4523
T-value	4.171***	3.955 ***	5.151 ***	-2.327*	-5.810***
	감정적 대응	인종차별 정도		인종적 편견	
		과거	현재	old	new
20대 이하	2.24	4.16	2.99	1.829 a	3.2949
30대	2.26	4.22	2.93	1.704 a	3.3033
40대	2.27	4.28	2.93	1.634 a	3.3767
50대	2.26	4.28	2.93	1.581 b	3.2689
60대	2.26	4.19	2.90	1.539 b	3.2919
70대 이상	2.28	4.10	2.81	1.555 b	3.3057
F- value	.145	2.185	1.036	4.280**	.647
	감정적 대응	인종차별 정도		인종적 편견	
		과거	현재	old	new
고졸미만	2.34	4.15	3.03 a	2.210 a	3.5077 a
고졸	2.25	4.14	2.93 a	1.953 a	3.5024 a
대학중퇴	2.24	4.25	2.88 b	1.701 b	3.4778 a
대졸	2.25	4.21	2.87 b	1.444 c	3.2117 b
대학원졸	2.30	4.30	3.03 a	1.3223 c	2.8994 c
F-value	1.296	1.957	2.849 *	48.959***	28.130***
	감정적 대응	인종차별 정도		인종적 편견	
		과거	현재	old	new
North east	1.5964 a	4.14 b	2.97	1.5964 a	3.2478 a
Mid west	1.637 a	4.19 b	2.87	1.637 a	3.3488 a
South	1.6123 a	4.27 a	2.91	1.6123 a	3.3919 a
West	1.5541 b	4.26 a	2.92	1.5541 b	3.1764 b
F -value	2.519*	2.542*	.928	2.519*	4.976**
	감정적 대응	인종차별 정도		인종적 편견	
		과거	현재	old	new
백인	1.5697 b	4.17 c	2.81 c	1.5697 b	3.3967 a
흑인	1.896 a	4.70 a	3.77 a	1.896 a	2.4126 c
히스패닉	1.8538 a	4.54 b	3.20 b	1.8538 a	3.1195 b
기타	1.8252 a	4.16 c	3.09 c	1.8252 a	3.4431 a
F-value	13.868***	28.294***	79.236***	13.868***	53.647***

*<.05, **<.01, ***<.001, 사후분석(post-hoc): Turkey(a>b>c)

전반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흑인관련 인종주의의 존재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집단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제가 발견된다. 먼저 성별의 경우, 인지 및 감정적 차원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특히 ‘새로운’(new) 인종 편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흑인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이고, 과거나 현재 모두에서 여성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남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소수집단으로서 여성은 미국 내 또 다른 전통적인 소수집단인 흑인에 대한 인식이 남성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소수집단으로서 갖는 동병상련이나 동정과 함께 실제 사회적 차별을 남성보다 많이 경험함으로써, 인종적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cf. Jackson, et al., 2001; Pantoja, 2006).

두 번째 연령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종차별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과거의 인종편견이나 새로운 인종편견에 상관없이,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판단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인종주의적 평가를 가장 적게 한다는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에 노출가능성이 높고, 인종적 소수자와의 경쟁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는 기존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Espenshade and Calhoun, 1993). 학력과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학력이 가장 높은 대학원 졸업이상과 학력이 가장 낮은 고졸이하 집단에서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견 같아 보이는 결과의 이면은 다른 역학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대학원이상의 학력이 높은 사람은 교육에 따른 진보적 이념과 사회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졸이하하는 사회적으로 하위집단에 속하거나 유색인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간접적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이러한 현실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셋째, 흑인 대상 인종주의의 다양한 차원을 둘러싼 집단 간 차이를 극명하게 발생시키는 변수는 역시 인종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흑인 스스로 자신의 집단에 대해 생물학적이고 전통적인 ‘과거의’(old)인종편견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히스패닉과 그 외의 소수인종집단도 흑인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보이는 반면, 백인이 흑인에 대한 생물학적인 편견을 가장 낮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로운 논제를 제공한다. 먼저, 미국에서 흑인은 자의든 타의든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과거의’인종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집단적 자아상’(self-image)이 일정부분 그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범주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자신의 집단을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반응이 나타난다(Brewer, 1981; Taifel, 1981; Ashford & Mael, 1989; 김혜숙, 1999). 결국, 흑인이 자

신의 집단을 생물학적인 ‘과거의’ 편견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흑인에 대한 ‘새로운’인종편견은 ‘과거의’인종편견과는 반대로 나타나, 흑인집단이 가장 낮고 백인집단이 가장 높다. 전술한바와 같이 ‘새로운’ 인종편견은 미국의 핵심가치인 자조와 자립에 기초한 개인주의 및 기회의 평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백인에게 보다 익숙하고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흑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수집단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자조와 자립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종편견은 단순히 자신들에 대한 기술(description)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과거의’ 생물학적 인종 편견은 흑백의 비교는 있어도 다른 소수인종과 흑인을 비교하지는 않는데 반해, ‘새로운’ 인종편견은 미국의 다른 소수인종과 흑인을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서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종주의적 경향성이 낮게 나타났다. 흑인에 대한 감정적 정서는 물론, 과거와 현재의 인종차별의 정도 및 인종편견 모두 서부가 다른 지역과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서부내 인종구성의 다양성과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점에서 이해가능하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인구구성을 보면 백인이 40%로 미국본토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에 반해 소수인종인 히스패닉은 37%로 뉴멕시코(46%)다음으로 많고, 아시안은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U.S. Census Bureau, 2010). 다만 과거의 인종차별을 서부와 남부가 높게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맥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서부는 전술한 사회적 다양성과 진보적 이념이, 남부는 미국 역사상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흑인 대상 인종주의 차원별 영향력의 차별성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차원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관심은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이 흑인대상 적극적조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단선적으로 밝히기보다는 각각의 차원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보는데 유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로서 기존의 관련 논의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 인구 및 사회통계적 변수로 <모형 1>을 구성하고,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인 흑인에 대한 정서적 대응을 추가한 <모형 2>, 인종주의의 인지적 차원 중 과거와 현재의 인종차

별에 대한 인식을 추가한 <모형 3>, 생물학적 전제에 기초한 흑인에 대한 ‘과거의(old)’인종 편견을 추가한 <모형 4>, 마지막으로 ‘새로운(new)’ 인종편견을 추가한 <모형 5>로 구성하여 그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5> 흑인대상 인종주의의 차별적 영향력

		모형1		모형 2		모형3		모형 4		모형 5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인구 통계 및 사회경 제적 배경	연령	.015	.600	.009	.360	.007	.272	.009	.373	-.001	-.053	
	성별	-.049	-1.978*	-.037	-1.509	-.025	-1.021	-.023	-.972	-.002	-.089	
	학력	.057	2.153*	.056	2.165*	.050	1.931	.062	2.307*	.003	.110	
	소득	-.095	-3.560***	-.100	-3.817***	-.091	-3.497***	-.090	-3.458**	-.058	-2.372*	
	인종	-.263	-10.686***	-.244	-9.989***	-.212	-8.585***	-.207	-8.344***	-.155	-6.567***	
	진보이념	.293	11.781***	.285	11.618***	.253	10.116***	.257	10.235***	.153	6.224***	
인종주의	흑인에 대한 감정				.145	6.016***	.142	5.966***	.146	6.112***	.076	3.331**
	인종 차별	과거					.018	.697	.022	.851	-.004	-.173
		현재					.146	5.415***	.141	5.216***	.074	2.892*
	인종 편견	old							.042	1.682	-.095	-3.954***
new										-.380	-14.101***	
R2		.202		.223		.243		.245		.340		
R2 변화량		.202***		.020***		.021***		.002		.095***		
F		58.305***		56.419***		49.252***		44.668***		64.517***		

+<.1, *<.05, **<.01, ***<.001

<모형 1>에서 보면,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흑인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유색인종일수록, 진보이념을 가질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진보이념>인종>소득>학력>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Hood & Morris, 1997; Williams et al, 1999; Pantoja, 2006; 박진경·원숙연, 2010). 여성이나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인종적 소수자인 흑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필요성에 다수집단에 비해 공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능한 결과이다. 학력의 경우, 전술한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배우고 진보적 이념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또한 학력이 높을 경우, 흑인과 같은 소수집단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기 때문에 설명 가능하다. <모형1>의 설명력은 20%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진보이념 및 인종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배경변수에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인 흑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추가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2%정도 증가하였으나, 기존 변수의 영향력의 정도나 방향성에서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모형 1>에서 유의했던 성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실, <모형 1>에서도 성별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기존 연구에서도 성별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는 점에서 이해가능한 결과이다. 변수별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진보이념>인종>흑인에 대한 정서> 소득>학력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전히 진보이념과 인종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에 대한 평가에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모형 3>에 따르면, 과거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데 반해 현재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미국 내 인종차별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흑인대상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조치가 과거의 차별에 대한 소급적이고 ‘사후적 보상’으로서보다는 현시점에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론 중 과거부터 누적된 차별에 대한 보상이라는 보상적 정의론의 설명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cf. Crosby, 1994; Williams et al, 1999; Bell et al., 2000; Massey, 2004). 또 하나, 인종차별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이 약 2%정도 높아지고, <모형 2>에 비해 학력의 변량이 약10%정도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변수 간 영향력의 방향성에 큰 변화가 없다.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진보이념>인종>흑인에 대한 정서> 인종차별(현재)>소득> 학력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영향력이 한정적임을 보여준다. 인종차별변수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이념과 인종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특히 관심을 갖는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학적이고 직접적으로 흑인의 열위를 가정하는 ‘과거의’(old)인종편견을 추가하여 <모형 4>를 구성하였다. <모형 4>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과거의’ 인종편견이 갖는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과거의’ 인종편견의 추가로 인해 기존의 영향요인 간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나 방향성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없고, ‘과거의’ 인종편견이 추가됨으로 인한 설명력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변수별 변량의 변화를 보면, 인종 및 현재 인종차별의 변량이 미미하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외

변수의 변량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특별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인종 편견은 ‘과거의’ 인종편견과는 다른 양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새로운’ 인종 편견 > 인종 > 진보이념 > ‘과거의’ 인종편견 > 흑인에 대한 정서 > 현재의 인종차별 >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먼저, ‘새로운’ 인종편견이 추가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이 10%정도 상승하여 34%에 이른다. 이는 여타의 변수들이 추가됨으로써 변화된 설명력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높은 설명력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흑인에 대한 집단정서, 과거 및 현재의 인종차별, ‘과거의’ 인종편견이 추가된 경우에도 진보이념과 인종의 영향력은 큰 변화 없이 존재하였으나, ‘새로운’ 인종편견이 추가되면서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인종편견이 추가되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었던 진보이념의 변량이 40%정도 감소하였고, 인종의 변량 또한 25%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소득 및 현재의 인종차별의 변량도 각각 35%와 47%로 감소함으로써 ‘새로운’ 인종편견의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인종편견이 추가되면서, <모형4>에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던 ‘과거의’ 인종편견의 변량이 약 55% 상승하면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종편견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인종편견의 영향력이 활성화되는 양상은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과거의’ 인종편견만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새로운’ 인종편견과 함께 할 경우, 일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왜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과거의’ 인종편견이 퇴조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대상 정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의 답이 된다(cf. Schuman et al. 1985; Sears & Jessor, 1996; Dovidio, et al., 1996; Kinder & Sanders, 1996; Tuch & Hughes, 1996; Carmines et al., 2011; Gainous, 2012). 즉, ‘과거의’ 인종편견 그 자체로서는 영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퇴조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종편견의 부상이 오히려 과거의 인종편견의 부정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V. 결론 : 연구결과의 함의

인종주의는 인종을 기준으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내집단(외집단)을 인종적으로 우월(열등)하다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인종주의가 단순히

인종 간 차이를 기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의 (불평등)배분의 근거가 되거나 합리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개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책은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종주의에 대한 행정학 및 정책학적 관심의 필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미국의 인종관련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흑인대상 적극적 조치를 대상으로,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종주의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영향력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구분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로 ①흑인에 대한 정서적 대응, ②과거의 인종차별, ③현재의 인종차별, ④‘과거의(old)’ 인종편견 ⑤‘새로운(new)’인종편견을 설정하였다. 무엇보다 인종편견 중 ‘과거의’ 편견과 ‘새로운’ 편견의 차별적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인종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 변수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영향력의 차별성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새로운’(new) 인종편견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점이다. 자체의 영향력은 물론 ‘과거의’인종편견의 영향력까지 좌우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전제에 기반을 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인종편견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압력으로 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Dovidio, et al., 1996; Kinder & Sanders, 1996; Tuch & Hughes, 1996; Carmines et al., 2011; Gainous, 2012), 여전히 소수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반대는 감소하지 않는 “원칙과 집행의 괴리”(principle-implementation gap)(Schuman et al. 1985; Sears & Jessor, 1996; Tuch & Hughes, 1996)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과거의’ 인종편견이 표면적으로 감소하여도, 그 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인종편견이 소수인종관련 정책집행의 보이지 않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편견은 ‘과거의’ 편견에 비해 인종주의적 색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반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헤게모니적 권력으로 존재하면서⁴⁾, 흑인 대상 적극적 조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평등)원리-(정책)집행”간 괴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종편견을 둘러싼 미국의 이러한 경험은 후발 다문화사회인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먼저, 순혈 및 단일민족-단일문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가진 인종주

4) 헤게모니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나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비가시적으로 내적인 원리를 규율하는 간접적인 지배로(Gramsci, 1971), 물리적 압력이나 강제와는 달리 비가시적으로 작동하는 푸코의 지식권력(knowledge power)과 유사하다(Foucault, 1980).

의적 경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이승애, 2006; 황정미, 2007; 원숙연, 2012),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에 따른 정책적 개입은 증가일로에 있고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선발다문화사회인 미국처럼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지 않고 시혜적이어서 아직은 저항이 덜하지만 (이혜경, 2007; 박진경, 2011), 우리에게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경향성이 이들 정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은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에 달려있고, 정책순응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미국의 경험은 인종적 편견이 인종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웅변하기 때문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2003; 2008),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또는 선호)이 인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백인과 중국 및 동남아 출신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여, 직장동료로서의 선호는 미국인(2.65)> 중국인(2.55)> 동남아인(2.54), 동네이웃으로서는 미국인(2.72)> 중국인(2.63)> 동남아인(2.61), 친척으로서는 미국인(2.33)> 중국인(2.21)> 동남아인(2.19)으로 나타났다. 백인이 아닌 경우에도, 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계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인데 반해, 노동자가 많은 캄보디아계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 2007; 한승준, 2011). 이처럼 인종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과 인종주의가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경험은 향후 정책방향이나 내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수집단이면서 정책비용의 부담자인 우리 국민이 가진 인종주의적 경향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표성 있는 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인종적 편견의 정체성- old 인가 new 인가?- 파악,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순응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여기에 더하여 인종편견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실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방식은 실리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종적 다양성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인 편견의 불식은 특정 편견을 뒤집는 ‘반대의 증거’(counter evidence)가 제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소수인종의 등장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사회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제시될 때 인종적 편견은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처럼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없이 ‘인종편견은 당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사라져야하다’는 식의 규범적 접근만으로는 ‘과거의’(old) 인종주의가 ‘새로운’(new)인종주의로 변모하듯 오히려 인종적 색채를 감추고 나타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인종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실리적인 접근을 위해서 정부는 인종적 소수자와의 접촉기회를 늘리고 이들의 기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종적 소수자를 단순히 시혜 및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동화에 주력하기 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개입(예: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직업교육, 사회적 일자리의 제공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설동훈, 2007; 남지민, 201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편견의 불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념이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미국에서 ‘새로운’인종편견보다는 약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와 견고함은 상당하다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에 대한 인식에 이념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징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분화와 정책인식의 차이가 그것이며, 이해관계에 민감해지는 정책영역(예: 복지 및 소수자)에서 보다 현저하다(이현출, 2005; 김신영, 2009; 류만화·최영, 2009; 이승희 외, 2009; 금현섭·백승주, 2010). 실제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정책을 평가하는데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갖는 영향력이 포착되고 있다(박진경·원숙연, 2010). 이념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일종의 ‘지름길’(shortcut)로 작용하면서(Battaglio & Legge, 2009: 699),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수임에 분명하다(금현섭·백승주, 2010).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학분야에서 이념에 대한 논의가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인종적 소수자 관련 정책에 이념이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와 견고성을 확인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이념의 문제를 철학이나 정치학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를 성찰하고, 향후 이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본 연구는 행정학분야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인종주의가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정책적 개입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의의가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나라와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른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인종적 다양성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인종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표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후발다문화사회로서 미국과 같은 선발다문화사회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통한 간접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본 연구의 한계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본 연구는 결과를 최대한 신중하게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찾으려는 심층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 둘째, 조사자료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종을 백인·흑인·히스패닉으로 나누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을 모두 ‘기타’(the others)로 구분하고 있어서, 아시아인과 같

은 인종의 구성을 알 수 없고, 이들의 인식에 대한 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사대상 인종의 77%가 백인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집단과의 표본의 2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조사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변수별 결측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최대 4,240에서 최소 2,664에 이른다. 이러한 불균형 역시 연구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단선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차별적인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규명하고 있고 미국의 경험이 향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의의가 평가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철구(2001),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 이론적 접근 -”, 서양사론, 70: 7-42.
- 금현섭·백승주(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선희·전영평(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305-330.
- 김신영. (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사회적 신뢰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집.
-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남지민(2012),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 정책 방안 연구”, 한국정치연구, 21(1): 255- 277.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박진경 (2010),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 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71-195.
- 박진경·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191-217.
- 설동훈(2007), “국제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369-419.
- 송태수(2006),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 비교연구", 유럽연구, 23: 253-282.

- 원숙연(2012), “수렴 또는 발산? 외국인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시민-외국인이주자간 인식의 지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2): 247-275.
- 이승애(2006), 한국사회에서의 혼혈여성의 경험을 구성하는 젠더와 인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권혁용. (2009), “누가 언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가”, 국가전략, 15(3): 147-173.
- 이현출(2005), “한국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2): 321-343.
- 이혜경(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적 다문화주의 이론화, 219-250.
- 전영평(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 운동과 소수자 행정, 한국행정학보, 42(3): 9-27.
- 한승준·박치성(2011),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51- 82.
- 황정미(2007),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exis, M. (1999), "The Economics of Racism",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December: 51-75.
- Allport, G.(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lvarez, R. Michael, and John Brehm. 2002. *Hard Choices, Easy Answers: Values, Information, and American Public Opin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shford, B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MR*, 14:20-39.
- Ayers, J., Hofstetter, C., Schnakenberg, K. & Kolody, B. (2009). Is Immigration a Racial Issue? Anglo Attitudes on Immigration Policies in a Border Country, *Social Science Quarterly*, 90(3): 593-610.
- Barker, M. (1984), *The New Racism: Conservatives and the Ideology of the Tribe*, Aletheia Press, Frederick, MD.
- Battaglio R. & Legge, J. (2009), "Self- Interest, Ideological/Symbolic Politics, and Citizen Characteristics: A Cross-National Analysis of Support for Privatization", *PAR*, Jul/Aug., 697-709.
- Bell, M., Harrison, D., McLaughlin, M. (2000). Forming, Changing, and Acting on Attitude towar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Employment: A Theory Driven Approach. *J. of Applied Psychology*, 85: 784-798.
- Bobo, L. & Kluegel, J. (1993), "Opposition to Race-Targeting: Self-Interest, Stratification Ideology, or Racial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443-464.
- Brewer, M.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 of Social Issues*, 55(3):429-444.
- Carmines, E., Sniderman, P., & Easter, B. (2011), "On the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of Racial Resent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4: 98-116.
- Cooper, C., Knotts, H., & Brennan, K. (2008). The Importance of Trust in Government for Public

- Administration: The Case of Zoning, *PAR*, May/June: 459-468.
- Crosby, F. (2004). *Affirmative Action is Dead: Long Live Affirmative A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Souza, D. (1995), *The End of Racism*, NY: Free Press.
- Dovidio, J., Brigham, J., Johnson, B & Gaertner, S. (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N Macrae, C. Stangor, & M Hewston(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276-319, NY: Guilford.
- Espenshade, T. & Calhoun, C. (1993).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 Espenshade, T. & Hempstead, K.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Immigration Review*, 30(2): 535-570.
- Essed, P. (1984), *Everyday Racism*, Amsterdam: The Netherlands.
- Esses, V., Dovidio, J., Jackson, L., Armstrong, T.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 of Social Issues*. 57(3): 389-412.
- Faucault, M. (1980), *Power and Knowledge*, NY: Prince Hall.
- Ford, M. & Kelly, P. (2005), "Conceptualizing and Categorizing Race and Ethnicity in Health Services Research",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40(5):1658-1675.
- Funk, C. (2000). "The Dual Influence of Self-Interest and Social Interest in Public Opin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1): 37-62.
- Gaertner, S. & Dovidio, J.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Dovidio, and S.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61-8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Gainous, J. (2012), "The New "New Racism" Thesis: Limited Government Values and Race-Conscious Policy Attitudes", *J. of Black Studies*, 43(3):251-273.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NY: International Publisher.
- Haddcok, G., Zanna, M, Esses, V. (1994), "Mood and the Expression of Intergroup Attitudes: The Moderating Role of Affect Intensity", *European J. of Social Psychology*, 24: 189-205.
- Harrison, D., Kravitz, D., Mayer, D., Leslie, L., & Lev-Arey, D. (2006). Understanding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Employment : Summary and Meta-Analysis of 35 Years of Research. *J. of Applied Psychology*, 91: 1013-1036.
- Ho, C & Jackson, J. (2001). Attitudes toward Asian Americans: Theory and Measurement.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1553-1581.
- Hood, M. & Morris, I. (2000). Brother, Can You Spar a Dime? Racial/Ethnic Context and the Anglo Vote on Proposition 187.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194-206.
- Ingram, H. Schneider, A., & Deleon, P. (2007),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 Jackson, J., Brown, K., Brown, T., and Marks, B. (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 of Social Issues*, 57(3): 431-456.
- Jacobson, C. (1985), "Resistance to Affirmative Action: Self-interest or Racism?", *J. of Conflict Resolution*, 29(2): 306-329.
- 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2003; 2008)
- Kinder, D. & Sanders, L. (1996), *Divided by 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graphic Ideal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der, D. & Sears, D.(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414--431.
- Ladson-Billings, G. & Tate, W. (1995), "Toward a Critical Race Theory and What's it Doing in a Nice Field Like Education? ",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1(1): 7-24.
- Lazarus, R. (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2): 124-129.
- Lee, Y & Ottati, V. (2002).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The Role of In-Group-Out-Group Bias, Economic Concern, and Obedience to Law. *J. of Social Psychology*, 142(5): 617-634.
- Massey, G. (2004). Thinking about Affirmative Action: Arguments Supporting Preferential Policies. *Review of Policy Research*, 21(6): 783-797.
- McConahay, J. (1982),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Dovidio, J.& Gaertner, S.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91-126, Orlando, FL: Academic Press.
- Merger, M. (1994),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lemont: Wordsworth.
- Mayerson, D. Weick, K., Kramer, R. (1996), "Swift Trust and Temporary Groups", in R. Kramer & R. Tyler (ed.),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pp. 166-195. Thousand Oaks: Sage.
- Neuliep, J. & McCroskey, J. (1997), " The Development of a U.S. and 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4(4): 385-398.
- Pantoja, A. (2006). "Against the Tide? Core American Values and Attitudes
- Pettigrew, T. & Meertens, R. (1995), "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Pettigrew, T. (1989), "The Nature of Modern Racism in the United States", *Reveu Internationale de Psychology Sociale*, 2: 291-303.
- Pittinsky, T & Montoya, M. (2009). Is Valuing Equality Enough? Equality Values, Allophilia, and Social Policy Support for Multiracial Individuals, *J. of Social Issues*, 65(1): 151-163.
- Pittinsky, T., Montoya, R., Tropp, L.&Chen, A. (2007). How and When Leader Behavior Affect Intergroup Liking: Affect, Approval & Allophilia. Mannix et al.(eds), *Research on Managing Groups and Teams: Affect & Groups*: 125-144,

- Reyna, C., Tucker, A., Korfmacher, W., & Henry, P. (2005). Searching for Common Ground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of Affirmative Action. *Political Psychology*, 26(5): 667-681.
- Rocha, R., Longoria, T., Wrinkle, R., Knoll, B., Polinard, J., & Wenzel, J. (2011). Ethnic Context and Immigration Policy Preferences Among Latino and Anglo. *Social Science Quarterly*, 92(1): 1-19.
- Roth, B. (1994), *Prescription for Failure: Race Relations in the Age of Social Scienc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anchez, D. & Bonam, C. (2009). To Disclose or not to Disclose: The Effect of Biracial Disclosure, on Perceiver Responses. *J of Social Issues*, 65(1): 129-148.
- Schneider, A. & Ingram, H. (2005), "Introduction: Public Policy and Social Construction and Deservedness", in A. Schneider & H. Ingram(eds.) *Deserving and Entitled: Social Construction and Public Policy*, 1-33.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chneider, A. & Sidney, M. (2009), "What is Next for Policy Design and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Policy Studies Journal*. 37(1): 103-119.
- Schuman, H. & Bobo, L. (1988), " Survey-based Experiments on White Racial Attitudes toward Residential Integration", *American J. of Sociology*, 94: 273-299.
- Schuman, H. , Steeh, C., & Bobo, L. (1985), *Racial Trends in America: Trends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ars, D., Colette Van Laar, Carrillo, M., Kosterman, R. (1997). Is It Really Racism? The Origins of White Americans' Opposition to Race-Targeted Policies. *Public Opinion Quarterly*, 61:16-53.
- Sears, D. (1988), "Symbolic Racism" , in Katz P. & Taylor, D.(eds),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Plenum, NY, pp. 53-84.
- Sidanius, J. Singh, P., Hetts J., & Federico, C. (2000). It's not Affirmative Action. It's the Blacks: The Continuing Relevance of Race in American Politics. in Sears et al.(ed.), *Racialized Politics: Values, and Prejudice in American Public Opinion*: 183-21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niderman, P. & Piazza, T. (1993), *The Scar of R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niderman, P. & Tetlock, P. (1986), "Symbolic Racism: Problems with Motive Attribution in Political Analysis", *J. of Social Issues*, 42:129-150.
- Sniderman, P., Piazza, T., Tetlock, P. & Kendrick, A. (1991), "The New Racism", *American J. of Political Science*, 35:423-447.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Stoker, L. (1996),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Whites' Opinions across Racial Policies", *Social Science Quarterly*, 77(4): 768-777.
- Sumner, 1906
- Tajfel, H. & Turner, J. (1979),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7-24, Chicago: Nelson- Hall.
- Tajfel, H. (1981),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39.
- Tuch, S. & Hughes, M. (1996), "White Racial Policy Attitudes", *Social Science Quarterly*, 77: 723-745.
- U.S. Census Bureau (2010).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 Vaught, S. & Castagno, A. (2008), " "I Don't Think I'm a Racist": Critical Race Theory, Teacher Attitudes, and Structural Racism",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11(2): 95-113.
- Williams, D., Jackson, J., Brown, T., Torres, M., Forman, T., & Brown, K. (1999),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rejudice and Urban Whites'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and Government Help", *Social Problems*, 46(4):503-527.
- Wilson, R. (2006), "Policy Analysis as Policy Advice", in Moran, M. Rein, M., & Goodin, 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52-168.
- Wright, G. jr.(1977), "Racism and Welfare Policy in America", *Social Science Quarterly*, 57(4): 718-30
- Young, E. (2011), " The Four Personae of Racism: Educators' (Mis)Understanding of Individual Vs. Systemic Racism", *Urban Education*, 46(6): 1433-1460.
- Zajonc, R. (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2): 117-123.

ABSTRACT

Old or New? The Multi-dimensionality of Racism and Its Effect on Acceptance of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An American Experience

Sook-yeon Won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s of racism, consisting of emotional and cognitive dimensions, on the acceptance of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merican experiences. As widely recognized, racism is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an in-group and an out-group. In that sense, racism can make a difference in policy acceptance by racial group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racial prejudice, divided into 'old' and 'new' racisms. As such,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sub-dimensions of racism, old or new?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s do the sub-dimensions affect the acceptance of racial policy? What are their implications for racial policy in Korea? In so doing, this study applies data from the 2008-2009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ANES) conducted among 4,24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USA. The findings show some intriguing results. Firstly, 'new' racism, based on individualism and equal opportunity norms, strongly affects acceptance of racial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old racism, based on biological prejudice, is not as strong as that of the new racism. Secondly, the strong influence of liberalism on racial policy is reconfirmed. Thirdly, given that the cognitive dimension of racism is stronger than the emotional one, the acceptance of racial policy tends to be a cognitive matter. In a similar vein, the finding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racial policy is perceived as a response towards 'problems' in the present,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past. The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are discussed in depth.

【Keywords: Racism, Policy for Minorities, 'Old' Prejudice, New Prejudice, Liberalism】